

## 대순진리회 수도인의 불교관 - 『대순회보』를 중심으로 -

이종우\*

### ■ 국문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대순회보』에 투고된 글에 드러나는 대순진리회 수도인의 불교관을 검토하는 것이다. 대순진리회는 19세기에 등장한 신종교로 수도인은 대순진리회의 신도를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대순회보』는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에서 발행하는 간행물로 대순진리회 수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문헌이다.

교리와 수도인의 인식 속에서 대순진리회는 기본적으로 불교와 다른 종교다. 그러나 대순진리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 유불선 3교를 통합하고 당대 한국에 들어왔던 기독교의 영향을 일정부분 받았다. 그리고 실제로 대순진리회는 서가여래를 참례의 대상으로 삼는 등 불교의 요소도 가지고 있다.

『대순회보』에는 불교에 관한 다양한 글들이 존재한다. 이 글들 가운데 일부는 불교와의 비교를 통해 대순진리회 교리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글들은 불교의 교리, 예술품, 승려에 관한 고찰을 통해 대순진리회의 교리를 연구하고 신앙심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이 가진 다른 종교에 관한 인식의 검토가 종교의 비교 연구에 유용한 방법이고, 수

---

\* 상지대학교 조교수, E-mail: jwleers@sangji.ac.kr

도인의 불교관이 대순진리회를 비롯한 신종교를 향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드러냈다.

**주제어:** 대순진리회, 『대순회보』, 불교관, 종교의 비교

I. 서론

II. 대순진리회 속의 불교

III. 대순진리회 수도인의 불교관: 대순진리회 교리 파악의 매개

IV. 결론

## I.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대순회보』에 투고된 글에 드러나는 대순진리회 수도인의 불교관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수도인들이 대순진리회와의 비교, 불교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순진리회의 교리 파악을 위해 불교를 매개체로 삼음을 파악할 것이다.

대순진리회는 구천상제(九天上帝)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국의 신종교다. 대순진리회의 교리에서 구천상제는 증산 강일순(甞山 姜一淳, 1871~1909)이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어서 조정산(趙鼎山, 1895~1958) 도주(道主)가 만주 봉천(奉天)에서 강일순으로부터 종통계승(宗統繼承)의 계시를 받으신 데서 시작해서, 도주의 유명(遺命)으로 종통을 이어받은 박우당(朴牛堂) 도전(都典)이 1969년에 대순진리회를 창설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sup> 그리고 “수도인”은 대순진리회 신자를 일컫는 말이다.

대순진리회는 나름의 명확한 신앙 대상을 가지고 있지만, 교리와 발전과정에서 유불선을 비롯한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순진리회 수도인의 불교 인식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

1) 대순진리회 홈페이지 [www.daesoon.org](http://www.daesoon.org) 참조.

는다. 다만 신종교와 불교의 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순진리회를 언급한 선행연구<sup>2)</sup>를 비롯하여 영혼관<sup>3)</sup>, 치성의례<sup>4)</sup>, 윤회와 명부·시왕관념<sup>5)</sup>을 비교 연구한 선행연구, 그리고 대순진리회의 해원사상을 연구하기 위해 불교의 해원 사상을 비교 검토한 선행연구<sup>6)</sup>가 존재할 뿐이다. 이것은 대순진리회와 불교의 비교 연구에서 그 근간이 되는 두 종교의 신자가 가진 서로에 관한 인식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대순진리회 수도인의 불교에 관한 시각을 검토하기 위해 『대순회보』에 수록된 글들의 문헌연구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삼는다. 『대순회보』는 대순진리회가 발간하는 대표적인 잡지다. 본 연구에서는 여주본부도장에서 간행하는 『대순회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다른 도장에서도 『대순회보』라는 이름의 잡지를 간행하고 있지만, 여주본부도장에서 간행하는 『대순회보』가 끊임이 없고 체계적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주본부도장은 『대순회보』를 1983년 7월에 처음 발간했고, 분규 이후인 2006년 12월부터 매달 간행하고 있다. 『대순회보』에 글을 투고하는 사람은 주로 대순진리회 수도인들이고, 그 외에 대순진리회를 비롯한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나 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일부 투고한다. 이것은 『대순회보』의 검토가 대순진리회 수도인들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 2) 김방룡, 「해방 전의 신종교와 불교의 관계」,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66 (2015).
  - 3) 원혜영, 「초기불교 유입에 따른 민족종교사상: 대순의 영혼관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0 (2019).
  - 4) 박인규, 「중산계 종단의 치성의례: 대순진리회를 중심으로」, 『한국종교』 48 (2020).
  - 5) 도미닉 루타나, 「한국 불교와 대순진리회 죽음관 비교연구: 윤회와 명부·시왕 관념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40 (2022).
  - 6) 차선근, 「한국 종교의 해원사상 연구: 대순진리회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

## II. 대순진리회 속의 불교

대순진리회는 불교와 다른 신종교다. 그러나 대순진리회와 불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비수도인이 존재한다. 실제로 제132차 수습대책위원회에서 불교를 빙자한 포덕을 할 경우 1차는 경고 후 교육, 2차는 제명하기로 의결했다.<sup>7)</sup> 대순진리회가 불교와 유사하다는 세간의 인식을 이용한 포덕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본적으로 대순진리회는 불교와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대순진리회의 교리는 유교나 불교와 하등의 관계없는 해원상생지리(解冤相生之理)인 우주 자연의 법리(法理)이다.<sup>8)</sup>

이와 같이 『포덕교화기본원리』에서 대순진리회는 유교나 불교와 관계가 없음을 밝혔다. 또한 부처와 보살에 비해 강일순이 상제로서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는 구절도 확인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제께서 어느 날 김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이마두(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뜬 것이라」 이르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

7) 편집부, 「제132차 수습대책위원회 개최(2007년 9월 21일)」, 『대순회보』 76 (2007).

8) 『포덕교화기본원리』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1975), p.13.

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삼십년을 지내다가 최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헌을 넘어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甲子)년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辛未)년에 강세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sup>9)</sup>

위의 인용문은 서양의 문명이 물질 중심적이고 인류를 위기에 빠뜨리자 존재하는 모든 신적 존재가 구천에 하소연해서 대순하던 강일순이 직접 강세했다는 내용이다. 구천에 하소연하는 신적 존재 가운데 부처와 보살이 있다는 점은 강일순이 부처와 보살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과 반대로 대순진리회와 불교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 모습도 드러난다.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자.

상제님께서서는 금산사를 통하여 오셨다. 佛이란 쉽게 얘기해서 형상만 있는 것이다. 뱃속의 태아에 해당한다. 유지범절, 불지형체, 선지조화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법이 태좌법이다. 즉 태아의 뱃속 모습이다. 석가불은 3,000년이고 미륵불은 5만년 운수이다. 석가불로 말하자면 미성년이다. 아기불이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결혼을 할 수가 없다. 미륵불은 갓을 쓰고 서 있다. 어른이 된 것이다. 어른이 되려면 어린애에서 어른이 되는 것이 순리다. 상제님께서 미륵으로 오신다 했다. 불교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의 법이 나올 수 있다.<sup>10)</sup>

9) 『전경』, 교운 1장 9절.

10) 도전님 훈시(1991년 2월 12일); 류병무, 「불지형체(佛之形體)에 대한 일고찰<1부>」, 『대순회보』 144 (2013)에서 재인용. 이하 『대순회보』는 <http://webzine.daesoon.org>에서 인용하였음.

위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박우당이 대순진리회의 근본을 불교로 인식했고, 미륵불이 불교의 완성이며, 강일순이 미륵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불교가 대순진리회 교리의 근원이라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일순이 불교 교리의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의 개념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미래불인 미륵이라고 표방했음도 의미한다. 실제 대순진리회의 교리는 기본적으로 유불선 삼교를 비롯하여 기독교 등 19세기 이후 한국에 존재했던 종교들의 교리를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구절이 『전경』에 등장한다.

儒佛仙一合之情 …  
 仙佛儒諸修道者修道一合之情  
 諸道度諸精氣茁茁歸合太 …  
 聖哲茁茁歸茁茁歸合太一 … 11)

위의 인용문은 “유불선을 하나로 합한 정(情)이고, 유불선의 모든 수도자는 이 ‘하나로 합한 정’을 수도한다. … 모든 도의 법도와 모든 정기는 싹이 나서 크게 하나로 귀합된다. 성인(聖人)·철인(哲人)이 싹을 틔워 자라나서 크게 하나로 귀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인용문을 통해 대순진리회의 교리가 유불선을 하나로 합한 것이고, 대순진리회 수도인이 이것을 수도하며, 유불선을 크게 하나로 귀합되는 시작에 강일순이 존재한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구절도 등장한다.

道傳於夜天開於子 轍環天下虛靈  
 教奉於晨地關於丑 不信看我足知覺  
 德布於世人起於寅 腹中八十年神明<sup>12)</sup>

11) 『전경』, 교운 2장 42절.

12) 같은 책, 공사 3장 39절.

이것을 해석하면 “도는 밤에 전해지고 하늘은 자시에 열리는데 수레를 타고 천하의 영험한 곳을 돌아다녔다. 교는 새벽에 받들고 땅은 축시에 개벽하는데 믿지 못할 경우 내 발을 보면 깨달음을 알 것이다. 세상에 덕을 펼치면 사람들은 인시에 일어나며 복중에 팔십년의 신명이 들어간다.”이다. 첫 구절에 등장하는 “轍環天下”는 공자가 자신을 알아보는 패자를 찾기 위해 천하를 떠돌았다는 고사(古事)를 뜻하는 사자성어다. 유교의 시조인 공자의 이야기다. 또한 “看我足”은 석가모니가 마하가섭(摩訶迦葉)에게 준 가르침이었다. 그리고 “腹中八十年”은 노자의 선(仙) 도수에 등장하는 말이다. 이것은 대순진리회가 유불선을 통합해서 대순진리회의 교리를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같은 부분에 다음과 같은 구절도 등장한다.

佛之形體仙之造化儒之凡節<sup>13)</sup>

이것은 불교의 형체와 선교의 조화, 유교의 예의범절을 일컫는 말이다. 강일순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 때 유불선에서 핵심적으로 참고한 것이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는 구절이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전승(傳承)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며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상제께서 이제 민족들의 제각기 문화의 정수를 걷어 후천에 이룩할 문명의 기초를 정하셨도다.<sup>14)</sup>

이것은 강일순이 유교, 불교, 선도, 그리고 기독교의 정수를 모아서 후천 개벽의 기초를 닦았다는 의미다. 대순진리회가 각 종교의 핵심적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나름의 교리로 재해석했으며, 그 중 불교

13) 같은 책, 공사 3장 39절.

14) 같은 책, 교법 3장 23절.

교리도 있음을 의미한다.

대순진리회 수도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공간인 영대(靈臺)와 영대에서의 의례에서도 불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신앙 대상인 강일순의 영정도 영대에 있다. 영대에 있는 신위를 살펴 보면 대순진리회 수도인들이 어떤 존재를 신적 존재로 숭배하는지 드러난다.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영대에는 총 15위의 신위가 있다. 15위의 신위는 ① 구천응원녀성보화천존강성상제(증산 강일순) ② 조성 옥황상제(도주 정산 조철제) ③ 서가여래 ④ 명부시왕 ⑤ 오악산왕 ⑥ 사해용왕 ⑦ 사시토왕 ⑧ 관성제군 ⑨ 칠성대제 ⑩ 직선조 ⑪ 외선조 ⑫ 칠성사자 ⑬ 우직사자 ⑭ 좌직사자 ⑮ 명부사사 등이다.<sup>15)</sup> 이 가운데 “서가여래”는 석가여래(釋迦如來)를 일컫는데, 대순진리회에서 석가여래가 치성의 대상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서가여래의 신위는 치성에서 구천상제를 비롯한 15위의 신위 중 세 번째로 배례를 받는 상당히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sup>16)</sup>, 대순진리회 수도인들은 치성에서 서가여래에게 평배 3배를 올린다.<sup>17)</sup> 또한 도전 박우당 사후 신격화 논의 과정에서 서가여래의 신위를 내리고 박우당의 신위를 모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과 영대의 신위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는 측이 논쟁을 벌였다.<sup>18)</sup> 아울러 강일순이 스스로를 금산사의 미륵불과 동일시<sup>19)</sup>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대순진리회는 기본적으로 유불선과 대순진리회는 다른 종교임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대순진리회의 경전인 『진경』을 비롯하여 대순진리회의 핵심적인 문헌에는 대순진리회가 유교, 선도와 함께 불교를 참고하고 창조적으로 재해석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물론 대순진리회의

15) 고병철, 「대순진리회의 전개와 특징」, 『한국 종교교단 연구 II』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종교연구소, 2007), p.211.

16) 강돈구,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62 (2011), p.245.

17) 박인규, 「증산계 종단의 치성의례: 대순진리회를 중심으로」, 『한국종교』 48 (2020), p.74.

18) 강돈구, 앞의 글, p.249.

19) 김방룡, 앞의 글, p.214.

발전 과정에서 불교와 친연성만 눈에 띄지 않는다. 그 예로 일제강점기인 1941년 한국불교계가 일제의 심전개발운동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조선불교조계종”이 만들어졌고, 일제가 보천교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1937년 정읍의 보천교 십일전(十一殿) 건물을 해체하여 지금의 조계사 자리에 조선불교조계종의 총본산인 태고사 대웅전을 짓게 한 것<sup>20)</sup>을 들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불교가 생존하는 과정에서 신종교가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의 신종교는 샤머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지만, 윤리적 의식으로 방향을 전환한 지점에서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불교와 샤머니즘의 교착과 습합으로 신종교의 윤리의식이 탄생했다<sup>21)</sup>는 주장이 존재한다. 또한 한국 불교의 온전한 이해는 근대 이후 역사에서 신종교와의 관련성을 고찰해야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sup>22)</sup>는 주장도 존재한다. 종교가 변화·발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교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sup>23)</sup> 대순진리회를 비롯한 신종교는 불교를 비롯한 당대 기성 종단의 교리를 비판하는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교리를 받아들여서 신종교의 교리를 만들었다. 이것을 전제로 대순진리회 속에 존재하는 불교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수도인의 신앙심과 연구자의 객관성 모두에 도움을 줄 것이다.

---

20) 같은 글, p.206.

21) 원혜영, 앞의 글, p.285.

22) 김방룡, 「해방 전의 신종교와 불교의 관계」,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66 (2015), p.201.

23) 특히 김방룡은 신종교에 존재하는 불교적 요소로 ‘① 유·불·선 세 종교는 선천을 대표하는 종교지만 이들은 운세를 다 했고, 후천 종교는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띠고 있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유·불·선 세 종교의 장점을 비판적으로 취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제시하고 있다. ② 미륵불에 대한 열망이 신종교에 투영되어 있다. ③ 일제가 불교와 신종교에 대하여 다른 방식의 종교정책을 펼쳤고, 이로 인해 신종교 교단이 불교계로 편입된 사례가 많다.’ 등을 제시했다; 김방룡, 앞의 글, pp.211-216.

### Ⅲ. 대순진리회 수도인의 불교관 : 대순진리회 교리 파악의 매개

『전경』에는 다른 종교를 비롯하여 다른 종교의 주요 인물의 이야기가 많이 존재한다. 『대순회보』에도 『전경』에 등장하는 다른 종교와 그 종교의 주요 인물들에 관하여 고찰하는 글이 많다. 이탈리아 예수회 선교사인 이마두(利瑪竇, 마태오 리치, Matteo Ricci, 1552~1610)에 대하여 고찰한 글<sup>24)</sup>이 대표적이다. 또한 다른 종교에 관한 소개를 “종교산책”이라는 코너명으로 이어가고 있다. 특히 “종교산책” 코너 외의 다른 코너에서도 타종교의 본받을만한 인물에 대하여 칭찬하고 자신의 신앙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는 글<sup>25)</sup>이 수록되었다. 그리고 『대순회보』에는 불교를 언급하거나 검토한 글도 많이 확인된다.

『대순회보』에서 드러나는 불교관 중 하나는 대순진리회가 불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관점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재호의 글<sup>26)</sup>을 들 수 있다. 이재호는 대순진리회와 불교의 세계와 인간에 관한 관점을 비교하고, 이것을 통해 대순진리회의 세계와 인간에 관한 관점이 가진 특징을 도출했다. 이재호는 불교가 선천의 현실을 가장 잘 인식한 종교지만, 현실의 문제를 인간의 수행 부족으로만 보고, 이로 인해 구조적 모순을 언급하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그리고 현실의 구조적 모순에 관하여 답을 준다는 점이 대순진리회가 불교에 비해 우위를 점하는 지점임을 주장했다. 특히 대순진리회의 상제가 부처·보살의 차원을 뛰어넘는 존재로 간주했다. 아울러 필자 스스로가 ‘선

24)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이마두, 서양 문운을 열다」, 『대순회보』 5 (1986); 최정락, 「이마두의 중국 전교(傳敎)와 상제관」, 『대순회보』 194 (2017).

25) 문정철, 「영화 “울지마 톤즈”를 보고」, 『대순회보』 119 (2011); 신상미, 「혜초(慧超)의 발자취 : 실크로드에 남긴 동양 밀교의 선도자」, 『대순회보』 122 (2011).

26) 이재호, 「세계와 인간에 대한 대순진리회와 불교의 관점 비교 검토」, 『대순회보』 65 (2006).

천 종교와 대순진리회의 비교우위를 논하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없다.’고 기술할 정도로 대순진리회의 우월성을 주장함에 주저함이 없었다. 또한 조규제는 완주 송광사에서 강일순이 송광사 승려에게 호통을 친 일화를 소개했다. 이 글에서 조선 말기에 무뢰배가 무단으로 승려가 되었고, 이들이 불법을 빙자하여 흑세무민 했으며, 강일순이 이들을 질책하여 사죄했다는 내용이다.<sup>27)</sup> 그러나 이 글은 조선 말기 불교의 병폐에만 주목하는 성급한 일반화를 범하면서 강일순의 영험함을 강조하는 오류를 범했다.

일부 불교와의 비교를 통해 대순진리회의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보이는 글이 있지만, 『대순회보』의 대부분의 글에서 드러나는 불교관은 불교를 대순진리회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한 중간 매개체로 삼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류병무의 “불지형체(佛之形體)”에 관한 고찰을 담은 2부에 걸친 글<sup>28)</sup>이다. 류병무는 앞에서 언급했던 『전경』에 등장하는 “불지형체”의 실체를 파악했다. 1부에서 “불지형체”를 “불교의 형체”로 해석했고, 가람구조가 불교의 형체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것은 사찰에 불교가 생각하는 이상적 우주관이 담겨있고, 이것이 불지형체라는 의미다. 그런데 불교는 형(形)보다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궁극적으로는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다. 사찰의 가람배치를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사상, 교리 측면에서 대순진리회와 불교의 관계를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 한계를 가졌다는 의미다. 또한 류병무는 도장의 구성과 건축물, 서가여래 봉안과 미륵불 조성 등으로 인해 대순진리회가 불교를 모방한 종교라는 세간의 의견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 근거로 류병무는 강일순이 가지고 있었던 유교, 불교, 선도에 대한 견해와 비판, 사찰에서 승려들과 벌였던 논쟁 등을

27) 조규제, 「완주 송광사 법당 기둥: 불법을 빙자하여 흑세무민한 무리」, 『대순회보』 254 (2022).

28) 류병무, 「불지형체(佛之形體)에 대한 일고찰<1부>」, 『대순회보』 144 (2013); 류병무, 「불지형체(佛之形體)에 대한 일고찰<2부>」, 『대순회보』 145 (2013).

핍았다.<sup>29)</sup> 이것은 불교에 비해 대순진리회가 우월하다는 의식은 아니지만, 대순진리회 교리의 독자성을 주장한 것이다.

예술품에 관한 글이라는 점, 불교의 예술품을 통해 대순진리회의 교리와 그 독자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비슷한 글이 김광신의 심우도(尋牛圖)에 관한 글<sup>30)</sup>이다. 김광신은 불교의 심우도와 대순진리회의 심우도를 비교했다. 특히 불교의 심우도에 등장하는 소의 색깔이 검은 색에서 흰색으로 변하는 반면, 대순진리회의 심우도는 처음부터 흰색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순진리회의 흰 소가 ‘상제님의 완전한 진리’를 뜻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불교에서도 “심우도”라는 명칭을 쓰어도 불구하고 불교에서 “심우도(十牛圖)”라고 쓴다는 점을 다른 점으로 부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것은 대순진리회의 심우도가 불교의 그것과 다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심우도처럼 불교 예술품 고찰을 통해 대순진리회의 우수함을 찬양한 글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주본부도장 준공을 기념하여 조성된 청계탑(靑鷄塔)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교의 탑과 비교 고찰한 글<sup>31)</sup>로서, 불교 탑의 기본적 구조와 의미를 소개하고, 청계탑의 구조 상징적 의미와 비교했다. 그리고 결론에서 청계탑의 의미를 강조하고 탑의 위용을 찬양했다.

심우도, 탑처럼 교리 면에서도 대순진리회와 불교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명부<sup>32)</sup>, 일심(一心) 사상<sup>33)</sup> 등을 들 수 있는데, 『대순회보』에는 이렇게 대순진리회의 교리와 유사한 불교의 교리를 검토하고, 불교와의 비교를 통해 대순진리회 교리의 특징을 드러낸 글이 많다.

29) 같은 글.

30) 김광신, 「심우도(尋牛圖)」, 『대순회보』 89 (2008).

31) 백경언, 「청계탑(靑鷄塔)의 구조와 상징: 불교탑과의 비교를 통해서」, 『대순회보』 118 (2011).

32) 김성호, 「명부(冥府)에 관한 고찰(考察)」, 『대순회보』 125 (2011).

33) 강남규, 「대순사상의 일심(一心)에 대한 이해: 불교의 일심과 비교를 중심으로」, 『대순회보』 136 (2012).

강일순이 미륵으로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해 미륵신앙에 관하여 고찰하는 글도 존재한다. 1901년 대원사에서 공부를 마친 뒤 강일순은 스스로를 미륵<sup>34)</sup>이라고 칭하고 자신을 금산사 미륵불에 견주어 말하기도 했으며, 미륵불이 세상에 출현함을 예언했다. 그래서 『대순회보』에는 미륵에 관한 글이 다수 게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김성수는 남북국시대 신라의 승려였던 진표율사의 행적과 그가 펼쳤던 미륵신앙에 관하여 검토한 글<sup>35)</sup>을 게재했다. 김성수는 이 글에서 진표율사가 대순진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미륵신앙의 설파자이고, 금산사를 중창했으며 금강산에서 활동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것을 강일순의 강세(降世)가 당대 민중들의 미륵 출현의 염원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대순진리회의 교리와 연결했다. 이 외에도 금강산 토성수련장의 미륵불에 대한 참례법을 소개한 글<sup>36)</sup>도 게재되어 있다.

이 외에도 달마(達摩, ?~?)와 양 무제(武帝, 464~549)의 일화를 통해 대순진리회의 교리를 재조명한 글<sup>37)</sup>, 지눌(知訥, 1158~1210)의 돈오점수(頓悟漸修)에 관한 고찰을 통해 대순진리회 도인의 수도에 도움을 주려는 글<sup>38)</sup>, 반야(般若) 개념의 소개와 이를 통한 대순진리회의 진리 인식의 방법과 중요성을 소개한 글<sup>39)</sup> 등이 대순진리회 교리 파악을 위해 불교를 매개로 삼은 글이다. 이러한 글에서는 대순진리회의 우월성보다는 수도인의 수도나 교리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난다.

불교를 매개로 한 대순진리회 교리 이해가 드러나는 또다른 형태의

34) 『전경』, 행록 2장 16절.

35) 김성수, 「진표율사(眞表律師)와 미륵신앙」, 『대순회보』 98 (2009).

36) 윤미경, 「금강산 토성수련도장의 미륵불에 대한 예(禮)」, 『대순회보』 214 (2019).

37) 「보리달마와 양 무제」, 『대순회보』 142 (2013).

38) 김태수, 「지눌의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 돈오점수론을 중심으로」, 『대순회보』 159 (2014).

39) 최정락, 「반야무지론(般若無知論)에 나타난 반야(般若)의 의미」, 『대순회보』 193 (2017).

글은 불교 유적 답사기다. 특히 강일순이 사찰에서 공부했다는 기록이 많기 때문에 강일순의 행적에 관련된 사찰들도 『대순회보』에 투고된 글들의 주요 소재였다. 예를 들어서 강일순이 머물렀던 금산사<sup>40)</sup>, 송광사<sup>41)</sup>에 관한 글이 대표적이다. 또한 대순진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금강산에 관한 소개는 “금강산이야기”라는 코너로 연재되고 있었다. 금강산은 불교 역시 영산(靈山)으로 여기니만큼 불교 관련 유적이나 설화가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금강산이야기”에는 불교 유적과 불교 설화에 관한 글이 많다. 그 외에도 수리사(修理寺)와 같이 대순진리회의 교리와 연관되는 사찰의 답사기<sup>42)</sup>나 불교 4대성지 답사기<sup>43)</sup> 등이 존재한다. 아울러 조정산의 행적과 관련된 사찰을 소개한 글도 있는데, 1954년에 사흘간 머물렀던 해인사<sup>44)</sup>, 49일동안 불음불식하며 공부했던 금련산 마하사<sup>45)</sup>, 쌍계사<sup>46)</sup>, 동학사<sup>47)</sup> 등에 관한 글이 대표적이다. 「전경지명 답사」<sup>48)</sup>에도 같은 사찰명이 등장했다.

『대순회보』에는 대순진리회 수도인이 아닌 외부인들이 불교<sup>49)</sup>를 소개한 글도 존재한다. 이 글들은 대순진리회와의 비교나 대순진리회가 연관된 사찰이나 인물이 아닌 불교 소개에만 집중하고 있다.

40) 조우장, 「금산사 대적광전을 보고」, 『대순회보』 44 (1994); 손은영, 「금산사를 둘러보고」, 『대순회보』 54 (1997); 교무부, 「상제님께서서 금산사 미륵금불에 임어하시다」, 『대순회보』 69 (2007).

41) 조규제, 「원주 송광사 법당 기둥: 불법을 빙자하여 혹세무민한 무리」, 『대순회보』 254 (2022).

42) 편집부, 「지명 이야기: 수리산 수리사」, 『대순회보』 63 (1999).

43) 김성수, 「불교의 4대 성지」, 『대순회보』 70 (2007).

44) 박인규, 「해인사(海印寺)에 올라」, 『대순회보』 108 (2010).

45) 박영수, 「금련산(金蓮山) 마하사(摩訶寺)」, 『대순회보』 112 (2010).

46) 염장선, 「삼신산 쌍계사(三神山 雙溪寺)」, 『대순회보』 111 (2010).

47) 종단역사연구팀, 「계룡산 동학사」, 『대순회보』 198 (2017).

48) 객준근, 「전경지명 답사: 여기에서 도주님께서 공부하셨구나!(상)」, 『대순회보』 151 (2013).

49) 김방룡, 「불교와 그 역사적 전개」, 『대순회보』 115 (2010); 안양규, 「붓다의 생애」, 『대순회보』 181 (2016).

## IV.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대순진리회 수도인의 불교에 대한 시각을 『대순회보』에 투고된 글의 검토를 통해 고찰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수도인 일부가 불교와 대순진리회의 비교를 통해 대순진리회 교리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했지만, 상당수의 수도인들은 불교를 대순진리회 교리 파악의 매개체로 삼음이 드러났다.

한국의 종교지형을 “다종교상황”으로 보는 시각은 이미 연구자와 일반인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종교 사이의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종교 연구자들 사이에서 종교의 비교는 유효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종교 연구의 역사에서 종교 사이의 비교는 주요 학문 분과 중 하나로 자리 잡아 왔다. 특히 소위 “주요 종교”들은 그 성장 과정에서 다른 종교의 영향을 일정부분 받았고, 그 영향을 받은 종교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부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19세기 이후 나타난 한국의 신종교는 당대 존재하던 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고려하면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보는 시각을 검토하는 것은 종교 연구를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데 특정 종교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른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큰 진척을 보이지 않은 상황<sup>50)</sup>이다. 객관적 시각에서 두 종교를 비교하는 행위는 나름의 의미가 있는 연구 방법이다. 이러한 연구 방법에 특정 종교의 신자가 다른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에 관한 연구는 종교 비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연구 방법이 될 것이다.

추가로 대순진리회 수도인의 불교관에 대하여 첨언하겠다. 한 종교

50) 일부 연구자가 수행한 특정 종교의 신자들이 다른 종교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고, 이것을 통해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 낸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조현범,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서학 인식: 종교/과학 구분론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상사학』 50 (2015) 참조.

에 신앙심이 강한 사람이 다른 종교에 비해 자신이 믿는 종교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다. 실제 『대순회보』에 투고된 글 가운데 불교와의 비교를 통해 대순진리회의 우월성을 강조한 연구가 존재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글들은 불교를 자신의 신앙을 강화하고 교리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삼는 동시에 불교에 대한 존중을 보여줬다. 신종교를 향한 부정적 시각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대순회보』에 나타나는 모습은 신종교를 향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강돈구,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62, 2011.
- 고병철, 「대순진리회의 전개와 특징」, 『한국 종교교단 연구 II』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종교연구소, 2007.
- 김방룡, 「해방 전의 신종교와 불교의 관계」,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66, 2015.
- 도미닉 루타나, 「한국 불교와 대순진리회 죽음관 비교연구: 윤회와 명부·시왕 관념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40, 2022.
- 박인규, 「증산계 종단의 치성의례: 대순진리회를 중심으로」, 『한국종교』 48, 2020.
- 원혜영, 「초기불교 유입에 따른 민족종교사상: 대순의 영혼관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0, 2019.
- 조현범,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서학 인식: 종교/과학 구분론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상사학』 50, 2015.
- 차선근, 「한국 종교의 해원사상 연구: 대순진리회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20.
- 《대순진리회 홈페이지》 <http://www.daesoon.org>
- 《대순회보 홈페이지》 <http://webzine.daesoon.org>

■ Abstract

**The View of Daesoon Jinrihoe Devotees on Buddhism:  
Focused on Daesoonhoebo (Daesoon Magazine)**

**Lee Jong-woo**

Professor, FIND College, Sangji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view of Daesoon Jinrihoe devotees' on Buddhism revealed in the published articles of *Daesoonhoebo* (Daesoon magazine). Daesoon Jinrihoe, a new religion which emerged in the 19<sup>th</sup> century, its devotees are called 'Sudoin (lit. cultivator),' the devotee of Daesoon Jinrihoe. *Daesoonhoebo* is a monthly magazine that is published by Yeosu Headquarters Temple Complex of Daesoon Jinrihoe. This publication enables to understand its devotees' awareness.

In the doctrine and their perception, Daesoon Jinrihoe fundamentally differs from Buddhism. However, from the foundation of the order, it integrated the three religions: Confucianism, Buddhism, and Daoism. In addition, the order was inherited from Christianity of the times in Korea to a certain degree, Daesoon Jinrihoe is actually characterized by Buddhism, for instance, Shakyamuni has been a subject of worship.

*Daesoonhoebo* embraces diverse articles on Buddhism, some of them depict the doctrinal supremacy of Daesoon Jinrihoe by

comparing it with that of Buddhism. Nevertheless, a majority of articles contain the texts that research the doctrine of Daesoon Jinrihoe and enrich faith through the Buddhist doctrine, art works, and observation on monks. An attempt to examining awareness of a devotee in a certain religion with a view on other religion should be useful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 This study makes a momentum wherein the view of devotees' on Buddhism illuminates that a negative perspective on new religions including Daesoon Jinrihoe can be rectified.

**Keywords:** Daesoon Jinrihoe, Daesoonhoebo, the view on Buddhism, comparison of religion